

## 召命

안병무

공자는 오십에 천명(天命)을 알았다고 한다. 그가 오십 세가 되던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늘에서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시를 어떻게 받았나? 그의 짧은 자서전적 표현에 따르면 십오 세에 학(學)에 뜻을 두게 되었고, 삼십 세에 확고한 자기 입장을 세우고, 사십 세에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립적이 되었다고 하며, 오십 세에 비로소 하늘의 명(命)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벽돌쌓듯 쌓아 올라감으로써 마침내 자기가 세상에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할 일과 자기 발견이 함께 확실하게 인식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 육십대에 이해하는 능력이 원숙해져서 귀가 들을 말과 안 들을 말을 가려 들을 줄 알 뿐 아니라 그 깊은 뜻을 전체로서 이해하게 되었고, 칠십에 와서는 마음의 소원과 감성(情)적인 것과 지적인 것이 일치되어서 무엇이나 마음놓고 해도 실수

---

안병무 / 한국신학연구소장

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공자의 이력서를 보면 그의 생애에서 오십 세가 획기적인 것이었으나 거기에는 바울로에게서 보는 것같은 전향의 의미는 없고, 사는 길에 있어서 곡식이 자라다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 때와 견줄 만한 단계 정도라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오십 이후에도 새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익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과정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와 달리 싯달타는 소명이란 점에서 공자와 구별되는데, 그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수도하던 끝에 마침내 법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선정삼매(禪定三昧)속에 12인연을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관찰하기도 하며, 모든 법이 인연을 따라 소멸하는 우주의 진리를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37일을 지낸다. 이때 그는 “이곳에는 모든 번뇌가 다하고 나의 할 일은 끝났다”라고 말한다. 이런 해탈의 경지에 선 그는 ‘나는 차라리 잠자코 니르바나에 드는 것이 옳으리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수련은 그 자신이 니르바나에 들어가기 위한 일이었다고, 이제 그 경지에 이르렀으니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유아독존(唯我獨存)이다. 그는 홀로 자신 안에서 충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나 대범천왕(大梵天王)은 이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고뇌의 세상에서 싸워 이겨 최상의 정각(正覺)을 성취했으면 그 깨달은 바를 중생을 위해 설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여러 사람이 이러한 뜻을 간청하기에 마침내 그는 대비원력(大悲願力)을 발휘하여 도전하기를 40년을 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비원력이 그의 소명의 내용이다. 그의 득도와 이 소명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 그것은 분명한 전환점이다. 지금까지는 한 존재로서의 자기완성을 목표로 모든 정력을 기울여 그 목표에 도달한 것인 데 반해 소명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에게 있어 분명히 삶의 분수령과 같은 것으로 공자의 경우와는 다르다. 공자에게는 방향전환이 없는 데 반해 싯달타에게는 ‘나에게서 너에게

로'라는 분명한 전환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소명이다.

예수의 경우는 이와 또 다르다.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투쟁했다는 이야기는 크게 보아 석가의 소명 전야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가 공생애에 발을 내딛는 계기를 마르코복음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는 갈릴래아로 갔다”라고 서술한다(1, 14).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정치적 사건이 그의 소명을 실천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세례 요한의 체포는 어떤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소명은 ‘때’에 대한 인식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생애의 첫 선언은 ‘때가 왔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언뜻 공자와 대비해 볼만한 것이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공자는 자기 성장의 어느 단계를 소명(天命)과 결부시킨 데 반해 예수는 바로 역사적인 때를 자기 소명의 때로 본 것이다.

바울로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바울로의 경우는 위의 세 가지와 상당히 다르다. 바울로의 소명의식이 위의 경우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병행시켜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바울로의 소명

바울로가 받은 소명은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로는 기묘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 소명을 실천에 옮기는 일 때문에 동료들에게 시련을 받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받은 소명을 예수의 직계 제자들이 회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로가 소명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생애를 서술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들과 투쟁하려고 반론을 제기하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그런 발언 가운데서 주목되는 것은 그의 전향과 소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그의 발언

을 보자. 바울로는 투쟁의 글로 유명한 갈라디아서 맨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사람을 통하여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임명받아 사도가 된 나 바울로는” (갈라 1, 1).

그런데 이 말의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바울로, 사도 (apostolos),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중요한 편지들이 다 그렇다. 로마서의 첫 서두도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은”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고 고린토전서는 “바울로, 사도로 부름받은” 순으로 되어 있다. 도대체 이런 식의 편지어법은 일찌기 없었다. 어떻게 편지 서두에 자기 이름을 가장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교회 안에서 위계질서처럼 되어 있는 사도라는 말을 그 뒤에 놓을 수 있을까. 거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소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입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밝힐 것은 사도라는 말이다

## 사도됨과 소명

사도란 보낸다는 동사를 어간으로 한 명사이다. 즉 파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아주 일찍부터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열 두 사도라는 관념적 숫자가 작용했다. 열 둘은 고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의미한다. 예수의 직계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위시한 일부가 사도권을 주장할 뿐 아니라 열둘이라는 관념 속에 그 사도권을 정착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도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사의 예수를 목격한 제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열둘이라는

관념적 수는 정해져 있으나 그 안에 드는 사람은 유동적이었던 것 같다. 마태오의 것과 마르코의 내용은 같으나 루가와 요한에는 한 두 사람씩 다른 이름이 보인다. 사도행전에 가리옷 유다 대신 마티아를 보궐한 것으로 보아 (사도 1, 26) 예수 이후의 열두 사람에게도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바울로는 한사코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바울로는 역사의 예수를 본 일도 없었거니와 열둘 중에 포함된 일도 없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볼 때 그는 부활의 현장에도 없었던 자였다. 그의 사도권 주장이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바울로는 그가 사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내가 자유인이 아납니까. 내가 사도가 아납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고전 9, 1a)

이 주장은 다른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 바울로가 언제 역사의 예수를 보았는가? 바울로는 이 말로써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그가 예수의 생존시에 비록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를 만난 경험은 있었다는 말인가? 그런 흔적은 전혀 없다. 만일 그가 역사의 예수를 본 일이 있다면 그 여러 편지 중에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는 그의 전향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일컬음에 틀림없다. 그는 일찍부터 이루어진 이른바 부활고백(고전 15, 3-7)끝에 “그리고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해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고전 15, 8)고 함으로써 부활경험자의 반열에 자기를 두는데, 거기서는 시간개념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그런데 바울로의 사도권 주장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그가 어떻게 또는 누구에 의해 사도가 되었느냐는 사실이다.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킨 아버지를 통해 사도가 된 나 바울로는



...” (갈라 1, 1).

그는 비록 예수의 생존시에 그에게서 직접 열 두 사도에 임명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들 즉 공동체를 통해 사도로 임명되었거나 아니면 가령 베드로같은 대표적인 사람에 의해 임명 또는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역사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또한 하느님에 의해서 임명되었는데 그 하느님은 예수와 떨어진 별개의 존재로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 일으킴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한 하느님이라고 한다. 즉 한정사가 붙은 하느님이다. 이로써 바울로는 그의 사도권이 다른 사도들과 똑같은 반열에 선 것임을 강조한다.

바울로는 혹시나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자신은 다마스쿠스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단신으로 아라비아에 갔다가 삼 년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를 만났다고 한다. 또한 거기서 보름 동안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인 야고보 밖에는 어느 누구도 만난 일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수받지 않았음을 역설한다.

그러면 바울로는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가! 그가 같은 예수를 선교하는 것이라면 왜 구태여 사도권을 무리하게 내세워야 했을까. 사도라고 불리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 선교전선에 나선 이가 얼마든지 많았으며 저들 사이에는 별로 긴장이 없었다. 그러나 바울로가 사도권을 주장하는 데는 그의 소명의 내용이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특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울로는 자신이 받은 소명의 내용이 복음을 전하는 일(euangelizetai)이라고 한다(고전 1, 17). 이 점에서는 다른 사도들과 같다.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사도들과 달랐다.

그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보다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보다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갈라1, 8-9).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단어 자체도 같은데 바울로가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복음이 정당한가를 가리기 위한 투쟁에서 확실한 교권인 사도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까닭은 바로 그 다른 주장자들이 사도권을 등에 업고 바울로가 전한 복음에 대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사도됨은 사람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서 살린 하느님 아버지께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꼭 같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의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갈라 1, 11-12) 고 한다.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을 지키는 일은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가 전향한 삼 년 뒤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계파를 만났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도 저들에 의해 복음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십사 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이 있는데, 그때에도 저들에게 무엇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갈라 2, 2).

그러면 바울로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그의 복음선교의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이다. 바울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나는 이방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내 임무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로마 11, 13)라고 한다. 또 그는 같은 편지에서 “나는 이방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15, 16)라며 바로 그 직책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여기에서 그의 소명의 내용이 뚜

렸해졌다. 바울로는 비유다인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사도들이나 어느 누구와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불러주신 이가 기쁜 마음으로 이방사람들 가운데서 그 아드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아드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갈라 1, 15)고 한다.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은 제2이사야의 표현인데 (이사 49, 1) 그 익명의 예언자가 “너는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하여라”(49, 6)라는 계시를 전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바울로가 이 표현을 빌린 것은 복음의 세계화라는 확실한 소명을 시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바로 이런 표현은 예레미아에도 있다 (예레 1, 5).

그런데 이와 같은 소명은 순수한 복음전파라는 차원에서만 볼 때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직접 충돌할 까닭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 유다교의 폐쇄성이 무너지고 그에 따라 생겨나는 결과들이 심각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교회의 신학적 입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아직 그 때까지도 그리고 그후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유다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교회내의 지도층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 유다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자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이 위축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자니 유다교의 전통과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딜레마에서 전통을 꺾고 있는데, 한때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일의 선봉에 나섰던 바울로가 독자적으로 유다전통에서 탈출하여 아무 조건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저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축을 같이 하는 그레꼬로마의 영역에 있는 유다인 그리스도인들도 곳곳에서 바울로와 충돌을 일으켰으며, 그때마다 저들은 바울로의 교권의 정당성을 문제삼고 나왔던 것이다.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층은 이방선교 자체



를 부정한 것은 아니나 아무리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는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할례받는 일, 이방인과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지 않는 일 등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로에 대해서도 비록 그의 공로를 일면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사도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를 받아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로는 자기의 주장을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소명은 고유한 것으로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긴장은 점점 고조된 것이다. 바울로는 비록 자기의 신념을 관철해 나갔지만 한편으로 예루살렘교회와의 연대성을 중요시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소명의 고유성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십사 년 후 이른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했던 것이다. 거기서 그는 자기 소명의 고유성을 분명히 함으로 저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하며 결론으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느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같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할례받은 자들을 위한 사도직을 베드로에게 주신 분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위한 사도직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갈라 2,7-8)라고 말한다.

###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의식을 가진 바울로는 팔레스틴 밖에서 지중해를 중심한 모든 지역과 소아시아 일대를 세 차례나 누비고 다녔다. 그의 활동은 단순히 물량적으로만 보아도 초인적이었다. 그의 목적지는 세계의 심장부로 알았던 로마와 마침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한 스페인까지 포함되었다. 글자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가 받은 복음을 전하려 한 것이다. 그는 세계제국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군사도로와 행정중심지

를 거꾸로 이용하여 마치 “전염병”같이 그리스도교를 전파해 나갔다. 그런데 그의 이같은 초인적 활동은 그리스도교로 세계를 ‘정복’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는가?

그는 유다교가 고집하는 “할례”를 거부함으로 그로 인한 유다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의 담을 헐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일찍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시로 “세례”를 실시했다.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바로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한 표시로서 세례를 베풀어 하루에 삼천 명씩이나 전향시켰다는 보도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로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는 세례를 주는 일로 인해 계파가 생기는 것을 경고하면서 자신은 두 사람 외에는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느님께 감사한다’(고전 1,24)고 한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교의 물량적 확장을 목표로 하지 않았으리라는 주장의 근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그에게는 그리스도교를 새로운 종교로서 조직하고 그것을 성격화하기 위해 의식(儀式)상으로 제도 따위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했다는 인상도 없다. 그럼녀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교를 새로운 종교로 발전시키는 데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복음의 내용이 일으킬 세계 변화를 기대하는 데 있지 않았을까?

이런 물음을 가질 때 우리의 관심해야 할 것은 그의 전향사건에서 풀이된 동기들이 그의 소명에 어떤 작용을 했나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벽주의자, 엘리뜨주의자에서 예수의 민중들이 별인 사건에 항복하고 그들을 향해 전향한 그 사실이 그의 소명을 실천에 옮기는 데 어느 정도 반영됐나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전향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예수의 십자가로 집약한 것인데 이 사실은 대단히 민중적이다. 후에 이것을 별도로 살펴 보겠지만 그는 십자가라는 말자체를, 동사까지 합하면, 무려 17회나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을 자신의 복음의 중심으로 삼는다. 그는 십자가의 사건이 반유다적이며 반헬라적임을 알고 있다. 십자가

는 율법의 시각에서 볼 때나 지혜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 어리석은 것이며, 하느님에게 정죄받은 상징이기 때문에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이른바 지혜있는 자들을 비판하는 끝에 “유다사람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고전 1,22-23)라고 하면서 “이것이 유다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부르심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능력이요 하느님의 지혜”(24절)라고 역설적인 말을 하고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다(25절). 이 십자가는 엘리프의 눈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약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엘리프적인 것이고 민중적인 것이다. 그는 그 다음에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서 그들은 권력이나 지혜나 가문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며 어리석고 약하고 멸시받으며 존재없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하느님은 바로 이런 약자들을 선택해서 강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고 한다(고전 1,26-28참조).

그의 반율법투쟁은 민중해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것도 후에 별도로 논의할 것이지만 율법이 상류층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고 그들의 권익을 뒷받침하는 구실이 되지만 가난한 자, 눌린 자에게는 속박의 쇠사슬로 기능했던 것이다. 그는 십자가의 사건을 마치 종의 문서를 불태우는 사건처럼 이해 했다(골로 2,14). 이 점에서는 예수의 운동과 축을 같이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제국주의와 가부장제도 하에 고착된 계급성을 타파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 자유인과 종의 벽, 남자와 여자 사이의 벽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라면 십자가의 복음은 체제 속에서 눌러 있는 자들 즉 민중의 해방을 위한 복음이라는 뜻이 된다.

사실상 그의 선교영역에서는 이런 담들이 헐려져 갔으며, 바울로 자신도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맙시다”(갈라 5,1). 그는 그의 길을 방해하면서 유다주의를 관철하려는 자들과 싸우면서 “그 거짓 형제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 몰래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갈라 2,4)라고 규정한다. 자유! 그것은 자유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속받고 있는 자 즉 민중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마침내 그의 신관(神觀)마저도 민중적이 된 일면을 보여준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반유다주의적, 반희랍지혜적 상징으로 내세우는 맥락속에서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데(고전 1,25), 여기서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전능한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약함의 표상이라는 시각이 노출되어 있다. 그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현실을, 예수가 약해서 달려 죽은 사건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발상들은 예수의 민중운동에 영향받은 것이 아니었으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바울로와 같은 완전주의자에게서는 약함은 죄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현실적으로 관철되었는가? 오히려 그에게는 유다적-반유다적인 면이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는가? 이것은 뒤에서 계속 문제삼게 될 것이다.